

연변시인협회 시총서

시향만리



사랑의 자세

제4호
2009

연변인민출판사

연변시인협회 시총서 시향만리 제4호

사랑의 자세

주필: 김응준

편집: 김응룡

江苏工业学院图书馆
藏书章

연변인민출판사

责任编辑: 金仁德

责任校对: 崔顺兰

技术设计: 郑善淑

图书在版编目 (C I P) 数据

爱的坐标: 朝鲜文 / 金应俊主编. — 延吉: 延边人民出版社,
2009. 11

ISBN 978-7-5449-0769-9

I. ①爱… II. ①金… III. ①诗歌-作品集-中国-当代-朝鲜语 (中国少数民族语言) IV. ①I227

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(2009) 第198505号

爱的坐标

出版: 延边人民出版社

(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, <http://www.ybcbcs.com>
<http://www.ybcps.com>)

印刷: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

发行: 延边人民出版社

开本: 880×1230 1/32 印张: 10 字数: 320千字

标准书号: ISBN 978-7-5449-0769-9 (民文)

版次: 2009年11月第1版 2009年11月第1次印刷

印数: 1-300册 定价: 20.00元

如发现印装质量问题, 影响阅读, 请与印刷厂联系调换。

차례

제1부 오정묵시인 특집

기성시 8수

잡초	3
고궁에서	3
놀이섬	4
양력설	5
식수	6
불구자	7
사진	8
아버지의 모습	8

신작시 12수

어곡전	10
말	10
행복이여	11
천불지산에서	12
장가계의 붓대바위	13
사랑이란	13
내 사랑 착한 꽃	14
사랑의 노래	15

사랑의 자세

불치의 병	15
사랑의 사소한 버릇	16
사랑의 바위	17
사랑의 자세	17
끈은 이렇게 이어진다 / 산천	18

제2부 연변시인협회 현지창작 시묵음

춘화의 산(외 1수) / 김응준	27
시골의 빈집(외 1수) / 김운일	29
전설의 고장 / 리선호	31
시골나들이(외 1수) / 김동진	33
구제비(외 1수) / 김영능	35
도시와 농촌 접경지대(외 2수) / 김응룡	37
동쪽끝에 초소가 서있다 / 김문세	40
희망(외 1수) / 석문주	42
그리움(외 3수) / 진혜(陈慧)	44

제3부 신작시

1. 뿌리 깊은 샘

룡정(외 1수) / 설인	49
단풍 드는 님사랑(외 1수) / 황옥현	52
깡깡 말라붙은 기억들(외 2수) / 김철	53
밤숲 로맨스(외 1수) / 리상각	57
김춘장(외 1수) / 김응준	59

안된다(외 1수) / 김운일	61
물방아추억(외 2수) / 김옥	64
도끼봉(외 2수) / 황상박	67
신농씨 하소연(외 2수) / 리근영	69
젖무덤(외 2수) / 리명	71
불치병(외 1수) / 유천	74
가을(외 1수) / 최금란	76
마음은 아이들이 그립다(외 1수) / 심정호	78
흙이 되어 물이 되어(외 3수) / 강효삼	81
시골정자(외 3수) / 최문섭	85
한(외 2수) / 함창도	87
나는 칼쟁이 / 채관석	90
산아(외 1수) / 김철학	92
이름을 불러달라(외 3수) / 김영능	94
무덤앞에서(외 3수) / 리문호	101
이불 그리고 숟가락(외 1수) / 최기자	106

2. 비상하는 시상

새(외 3수) / 김철호	108
풍경(외 2수) / 석화	112
별들이 앉았던 자리(외 2수) / 김일량	115
침향, 그대여(외 1수) / 한태익	120
그것이 그것(외 3수) / 정호원	122
바람(외 2수) / 김인덕	126
내 바라는 고향(외 2수) / 방태길	130
겨울나무(외 2수) / 김춘희	134
명월호(외 1수) / 방상홍	137
토끼여 굴옆에 풀을 랑비하지 말라(외 3수) / 박장길	139

고운 오늘 아름다운 풍경속의 나(외 2수) / 윤청남	144
5월(외 1수) / 황정인	146
밤비(외 1수) / 한룡운	148
이슬(외 2수) / 박명순	149
장대절레 미는 아줌마(외 3수) / 심예란	152
선생님(외 2수) / 최용	155

제4부 흑토의 정

- 흑룡강시인특집

별은 나로 하여금(외 2수) / 리삼월	161
손금(외 4수) / 한춘	165
가을나비(외 1수) / 정경남	170
내 마음의 민들레꽃(외 1수) / 안봉록	172
바람이여(외 1수) / 리홍규	173
천년바위(외 3수) / 최화길	176
공원 구석진 곳에 가면 벤치에 앉지 말라 / 한영남	180
봄 오는 트랙(외 1수) / 장련춘	191
리강(외 2수) / 홍순범	193
믿음(외 1수) / 리창현	197

제5부 김동진시인 시조세계

- 제4회 한국《문예시대》해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

시조 10수

천고의 달빛으로	201
----------	-----

두만강	202
진실한 가을	203
지계	204
홀씨 민들레	205
만추여정(晩秋余情)	206
5월 17일	207
안개꽃	208
산에 기대여	209
개화기	210
심사평	211
수상수감	214

제6부 교정의 시향

- 대학생코너

내 마음속의 큰 별 / 손성혜	219
돌 / 리위	220
호수 / 차소선	221
가을비 / 리런화	222
습관(외 1수) / 김화	223
그림자 / 강룡길	224
알수 없어요 / 왕수원	225
눈길(외 2수) / 리광원	227
물처럼 / 김혁(흑룡강대학)	229

제7부 손에 손잡고

- 한국 대구시인협회 시 한바구니

그해 가을(외 2수) / 이구락	233
압록강가에서(외 2편) / 정호완	236
초승달(외 2수) / 서지월	238
처녀송(외 2수) / 홍승우	241
감나무 조시(弔詩)(외 2수) / 고희림	244
지우개똥(외 2수) / 서하	248
매물도련가(외 2수) / 김남희	251
성인봉에 올라보니(외 2수) / 황태면	254
마음을 다룬다(외 2수) / 고안나	257

제8부 좋은 시 감상

1. 중국시인의 시

벗어날수 없어라(외 3수) / 담옥동	263
고향, 유채밭, 숲과 첫마디 말(외 3수) / 림망	266
고향(외 4수) / 이수문(李秀文)	272

2. 조선시인의 시

더는 쓰지 못한 시(외 9수) / 김철	277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3. 한국시인의 시

풀 / 김수영	292
꽃 / 김춘수	293
묵화(墨畵) / 김종삼	294

한잎의 여자 / 오규원	295
사슴 / 로천명	296
귀천 / 천상병	297
사라진 손바닥 / 라희덕	298
소 / 김기택	299
그릇(1) / 오세영	300
긍정적인 밥 / 함민복	3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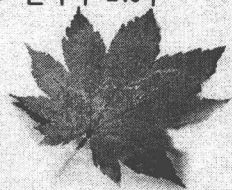
시인탐방

시인이 가는 곳에는 꽃이 피더이다 / 리범수	302
편집후기	309

제1부

오정묵시인 특집

1. 기성시 8수
2. 신작시 12수



1. 기성시 8수

잡초

누구 마음 흔들려고
누구 마음 울리려고

오고가는 사람들 발에
밝혀 굳어진 땅

그 길우에 태어나서
잡초라는 루명을 쓰고서도
눈물 한방울 없이 살아가느냐

누구 마음 흔들려고
누구 마음 울리려고

고궁에서

세속의 사람들 감탄을 자아낸다

흘러간 먼 옛날

황제와 황후 대신들과의 만남
그리고 나

눈 감으며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
허둥대며 떠나라
옛 세계 속박에서

절령이는 쇠사슬
나도 너도
긴긴 속박에서 떠나라

놀이섬

흐르는 강물 두쪽 내어
그 틈에 자리잡은 바위섬

목단강여울소리 민요런가
춤추는 궁녀들 보일듯말듯
그속에서 세월도 물결따라 흘렀다

오늘은 흔적도 남지 않아
풀들만 무성한데
바람소리 물소리만
예와 같구나

나는 누구인데
나는 왜
오늘 이곳에서
환락에 묻혀있는가

양력설

나는 기다리고기다린다
아니
허기진 배를 참으며
기다려진다
배부르게 먹을 그날 설날을

배가 고픈 때마다
하늘로 날아가는 흰구름
희디흰 찰떡으로 변하고
쭈룩쭈룩 쏟아지는 비
국수로 변하고
핑핑 쏟아지는 흰눈
밀가루로 변하고
아니 온 세상이
모두 먹을것으로 변한다면
그것으로
부모님 대접하고
형제들을 나누어주면

얼마나 기뻐할까
상상해보기도 했다

그런데 오늘 설이다
흘어져 살던
부모형제
모두 모여 화기롭다
먹을것만 생각하던
나 웃음꽃 만발한 속에서
새로운 락원 발견했다

식수

겨우내 얼고얼어
차디찬 내 마음까지
불어 들어와
훈훈하게 덮혀주는
사월의 바람

내 그 바람에 힘입어
마음속깊이 나무를 심는다
몇가닥 가느다란 뿌리
땅속에 내리여 젖줄기 묻다
귀여운 푸른 눈 뜨고
하늘과 시작하는 첫 대화는

하늘과 나만이 안다

내 가슴에 나무뿌리가 꿈지락거린다
내 가슴에서 나무가 푸른 눈을 뜬다
먼 후날을 약속하면서

불구자

바람과 내기하면서 달리던 렬차
마련하역에 멈춰서는데
내 눈은 감기여졌다
벌레처럼 기여다니는
불구자

무정한 하늘이여
무엇이 그대를 별주어
불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

내 가슴에서
몰아쉬는 한숨이여
한여름 소낙비라도
속 시원히 맞았으면...